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up>st</sup>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cok.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fny  
 Email : [stfrancisk.org@gmail.com](mailto:stfrancisk.org@gmail.com)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Fr. 김진열 가롤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mailto: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박순호 티모테아(투스 평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mailto: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mailto: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미카 5,1-4

[화답송] ..... 시편 80(79),2ㄱㄷㄹ과 3ㄴㄷ.15-16.18-19 (◎ 4



(후렴)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 되리이다.

-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를 기울이소서. 커름들 위에 좌정하신 분, 광채와 함께 나타나소서. 당신 권능을 떨치시어, 저희를 도우러 오소서. ◎
- 만군의 하느님, 어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찾아 오소서.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뭇가지를, 당신 위해 키우신 아들을 찾아오소서. ◎

[제 2 독서] ..... 히브 10,5-10

[복음환호송] ..... 루카 1, 38

- ◎ 알렐루야
- 보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 1,39-45

[성가안내]

- 입당성가 [92] 구세주 내 주 천주여
- 봉헌성가 [332] 봉헌
- 성체성가 [162] 성체 성혈 그 신비
- 파견성가 [88] 임하소서 구세주여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 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니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 미사 봉헌

연기사	봉헌
전 마지 마가렛 (영혼을 위하여)	연령회
조 남원	김 승연 안나
안 경일 마틴	안 영옥 분다
유 점례	유 미경 크리스티나
황 경희 루치아	황 경숙 수산나
차 덕순, 이 재영	이 영애 레지나
윤 기성 모니카, 황 현상	이 영애 레지나
양 윤희 루시아	이 영애 레지나
병기사	봉헌
김 영빈 가정 미사	김 영빈
남 승례 아가다 (건강회복을 위하여)	이 은경 헬렌
김 동희 헬레나	연령회
이 영애 레지나, 이 정진 안토니오	가족
이 지훈 아네스, 이 병국	이 영애 레지나
김 금옥 (건강을 위해)	정 희자 리브비나
김 진열 가롤로 신부	익명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복사 1	복사 2
12월 19일	장혜윤 크리스티나	민완준 필립보	김승연 안나	민완준 필립보	안선정 마리안나	한창희 바오로	정은철 프란치스코
12월 25일	이지훈 아네스	강호영 대건 안드레아	박신희 리나	박신희 리나	김영숙 카타리나	한서희 데레사 조소연 마르티나 이기원 스테파노	김진수 대건안드레아 이아림 수산나

● [성탄 판공성사]

대림시기 동안 고백성사를 (어느 성당이나 관계없음) 받으시는 분들은 성당입구에 비치된 '판공성사표' 작성하셔서 사무실 앞 바구니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대림시기 공동체의 속죄와 보속

주일 미사 전 9시까지 성당에 오시어 미사 독서, 복음을 읽고 묵상하며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 하도록 합시다.

● 주님 성탄 대축일 꽃 봉헌 받습니다.

봉헌금은 미국 본당에서 준비하는 성탄 전례 꽃꽂이에 사용됩니다.

● 2022년 후보 광고 신청 (신청비 : \$200)

후보에 사업체 광고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이나 미사 전·후 성당 입구 재무 데스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5주년 추진 위원회 있습니다. 오늘, 19일, 미사후 2층 교리실

● 2022년 달력 배달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 항구에서 하역 작업이 순조롭지 못해 늦어짐을 공지합니다.

[성탄 / 새해 미사 안내]

- 올해, 2021년 성탄 밤 미사는 없습니다.
- 성탄 낮 미사 : 12월 25일 (토) 오전 9시 15분
- 성가정 축일 미사 : 12월 26일 (일) 오전 9시 15분
-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2022년 1월 1일(토) 오전 9시 15분
- 주님 공현 대축일 미사 : 2022년 1월 2일 (일) 오전 9시 15분

[단체모임 안내] : 개방일은 추후 공지합니다. 방배정 먼저 확인하세요.

울드레아	첫째 주일 11:00 am	Conf. Rm(2F)
학부모회	첫째 주일 11:00 am	교육관 1B
요셉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E
성모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C
연령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1B
꾸리아	셋째 주일 11:00 am	Conf. Rm(1F)
양업회	셋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E
성령기도회	매주 화 06:00pm~07:30pm	Conf. Rm(2F)
예수성가정회 (FYMNY)	넷째 주일 11:00am	교육관 1B
사목협의회	넷째 주일 11:00am	프란치스 룸
'신명' 풍물패	둘째, 넷째 주일 2:00pm~	교육관 3A
예비자 교리반	매 주일 10:30 am ~	교육관 3A
청년회	매 주일 10:30 am ~	교육관 2A
청년 찬양팀	둘째 토요일 3:00pm~	교육관 3B
청년 전례부	둘째, 넷째 토요일 5:00pm ~	교육관 2E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지사항

기부

후보

\*\* 대림시기 후반부인 12월17일부터 23일까지

가톨릭 교회는 '오실 구세주'에 대한 급박함을 서둘러 표현하고 기도한다. 특히 시간전례중 저녁기도 성모의 노래, 마니피카트(Magnificat)의 후렴인 '오 안티폰' - O Antiphon (첫 글자가 O로 시작)은 구세주에 대해 다양하게 표현한다. 이 7개의 후렴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의 '표상'을 제시하며 구세주에 대한 희망과 기쁨을 전례안에서 나타내며 축제적인 분위기를 표현한다.

12월 17일 : O Wisdom...

오 지혜여, 지극히 높으신 이의 말씀이시며, 끝에서 끝까지 미치시며, 권능과 자애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이여, 오시어 우리에게 현명의 도를 가르쳐 주소서.

12월 18일 : O Adonai...

오 주님이여, 이스라엘 집안을 다스리시는이여, 타는 가시덤불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시나이 산에서 그에게 당신의 법을 주셨으니, 오시어 팔을 펼치사 우리를 구원주소서.

12월 19일 : O Root of Jesse...

오 이새의 뿌리여, 만민의 표징이 되셨으니 주앞에 임금이 잠잠하고, 백성들은 간구하오니, 오시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자들을 그 결박에서 풀어 주소서.

12월 20일 : O Key of David...

오 다윗의 열쇠여, 이스라엘 집안의 홀이시여, 주께서 여시면 닫지 못하고, 닫으시면 아무도 열지 못하오니, 오시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를 그 결박에서 풀어 주소서.

12월 21일 : O Star of Orient...

오 동녘에 떠오르는 영원한 빛이여, 찬란한 광채, 정의의 태양이시여, 오시어 어둠과 그늘 밑에 앉아 있는 이들을 비추어 주소서.

12월 22일 : O King of Nations...

오 만민의 임금이시요, 모든이가 갈망하는이여, 두 벽을 맞붙이는 모퉁이 돌이시니, 오시어, 흠으로 몸소 만드신 인간을 구원주소서.

12월 23일 : O Emmanuel...

오 임마누엘이여, 우리의 임금이시요 입법자시며 만민이 갈망하는이요 구속자시니, 오시어 우리를 구원주소서. 우리주 천주여.

- 대림시기 동안 맨하탄 아씨시 성 프란치스코 성당 벽에 걸어둔 보라색과 남색의 8개 배너에 위 내용들이 씌여 있다.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 투병중에 계신 분

- |               |            |
|---------------|------------|
| 김순한(루시아)      | 김옥지(아가다)   |
| 이종환(토마스 아퀴나스) | 김동희(헬레나)   |
| 이정주(소화데레사)    | 김용기(요셉)    |
| 지군자(스테파니)     | 정창동(폴리나)   |
| 고종호(마태오)      | 진정은(마리아)   |
| 홍봉운(바오로)      | 이진자(세실리아)  |
| 이병국 (요한)      | 노의선(프란치스코) |
| 이경봉 (요셉그레고리오) |            |

[2021년 12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복음화 지향 : 교리 교사들

하느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교리 교사들이 성령의 권능 안에서 담대하고 창의적으로 하느님 말씀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646-808-7322

이민전문 (아오스당)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그리운 miss **KOREA**

10 W 32ND STREET 1,2,3 FL, NY  
201-888-6765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5 WEST 8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 12PM-9PM)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CAMPUS Education**  
Learn English with US  
유학생 환영

212-868-9777 (한국어 상담)  
koreanny@studyoncampus.com  
410 8th Ave. 5 FL New York

Custom Made  
Clara Wedding Gown  
& Dresses

917-596-1460  
ClaraGowns@gmail.com



## 오늘의 복음 묵상

(루카 1,39-45)

오늘 복음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다' 이야기입니다. 루카는 아기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천사의 알림으로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었다는 것을 알고 즈카리아의 집이 있는 유다 산악 지방의 작은 마을을 찾아 갔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아닌 산골의 작은 마을은 두 '여인'의 만남과 태종의 두 '아기'의 만남이라는 소재와 더불어 웅대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 지리라고 믿으신 분!" 작지만 믿음의 응답은 하느님의 계획에 협력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찬미했습니다. 아기 요한은 태종에서 하느님을 영접하는 백성의 기쁨을 앞당겨 춤 추었습니다.

오늘 제1독서 미카서는 '현재의 임금과 미래의 메시아 임금' 이야기입니다. "너 에프라타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에서 보잘 것 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미카서의 저자 역시 예루살렘이 아니라 겸손한 목동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작고 보잘 것 없는 것이 위대해지는 신비의 중심에 전능하신 주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노래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주 그의 하느님 이름의 위엄에 힘입어 목자로 나서리라. 그러면 그들은 안전하게 살리니 이제 그가 땅끝까지 위대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제2독서 히브리서는 '유일한 희생 제사의 효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 전에 있던 모든 제사를 능가하는 구원의 효과를 가져오신 것을 찬양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당신 대신 바치실 제물을 마다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제물로 '한번에 완전히' 내어 놓으신 희생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한 겸손을 의미합니다.

오시는 주님을 알아차리는 데 필요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누가 감히 미약하게 시작한 날을 비웃느냐?" (즈카 4,10)

- 한 상만 토마스 신부 -

## [홍성남 신부의 특 쏘는 영성]

## 미운 짓 하는 사람들

사람을 대하다 보면 누구나 똑같은 감정을 불러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아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만날수록 기분 좋고, 보고 싶은가 하면 어떤 사람을 기분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감정을 갖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기분이 자신의 기분 여하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의 대인관계 내용에 의해 달라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들은 사랑 받을 만한 짓을 하는데, 미움받는 사람들은 미움받을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움받는 짓을 하는 것일까요? 성장 과정의 학습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이들은 가정 안에서 부모와의 감정적인 관계가 건강치 않을 경우 사랑받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미운 짓을 합니다. 야단을 맞더라고 부모의 관심, 부정적인 관심이라도 갖고 싶어하는 것인데 이것이 습관이 되는 경우 어른이 돼서도 여전히 미운 짓을 해서 주위 사람으로부터 소위 왕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집단 따돌림 한다고 남 탓을 하는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마저 떠나게 만듭니다.

요즘은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사방으로 진정서를 내고 자기만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 중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 정말 억울한 사람까지도 욕을 먹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미운 짓을 골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선택해야 하는 삶은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문제를 보기 전에 자기 문제를 보는 것 그것뿐입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 문제를 인정하면 문제를 고치지는 못해도 미움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아재 유머 하나 소개합니다. 주일미사에 나오는데 영성체는 죽어라고 하지 않는 형제님이 있었습니다. 본당신부가 이유를 물으니 죄 짓는 직업이라 못한다고 했습니다. 본당신부가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미사는 만찬의 자리이고 형제님은 식사비도 내셨으니 영성체를 하세요"라고 하자 그 형제님은 심각한 얼굴로 "신부님 ~ 저는 밥 먹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을 고민한 신부가 다시 형제님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일까요? 건강한 사람일까요? 병든 사람일까요? 병든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성체는 병자들을 위한 약입니다. 형제님은 마음이 병든 분이시니 약을 드시듯 영성체 하세요." 그러자 그 형제님이 조그맣게 "그럼 신부님께서 제게 영성체 해 주실 때에는 '그리스도의 몸'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약'이라고 해 주세요." 라고 부탁 하더라고요.